

謹呈

1963년 6월

慎
東
範
景
下

岳友

MONTHLY



전남대학교 신학회

그머들 ㅅ으로 가야하지
 았겠는가. /
 아아. / 이몸도 함께 떠나게
 해다오.
 그곳 —

= M·아아놀드 =

祝『岳友』創刊

全南大學校山岳會 OB

代表; 신귀현·김용석
기양도·임춘재
박종현·김훈봉

創刊辭

會長 南相萬

天竺의 山岳運動이 山生活에서만 그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좀더 생각하며, 반성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友誼를 더욱 두텁게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 月報를 창간 하게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發展的 孤立을 止揚하고
Alpinism 의 先鋒에 참여하는데
必須不可缺한 것이라고 確信하는
가운데, 어떠한 난관이라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努力을 傾注 할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意慾 에 鞭撻을
따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차 례

I.	시	-----	1
II.	축 창 간 (순차OB)	-----	2
III.	차 례	-----	3
IV.	창 간 사	-----	4
V.	卍會 약력	-----	5
VI.	신약인의 계언	-----	8
VII.	무등산 코스도	-----	13-16
VIII.	독 도 법 (I)	-----	17
IX.	메베레스트 습격머(I)	-----	20
X.	미제 새로운각도로	-----	25
XI.	금년도 사업계획	-----	27
XII.	신약회소식, 편집후기	-----	30

本會 略歷

편 집 부

우리 大學校에 있어서 山岳部는 文理大가 1958年 6월에 김응식, 신커현, 김종규 등이 주동이되어 산악반을 結成 두등산硯圖發行을 비롯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結成에 앞서 당시의 僑胞 靑壯교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교수가 앞장서 동료교수를 권유하고 학생들을 인솔하여 두등산을 오르 지 않았던들 우리 산악운동은 수년이 늦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고장 산악운동역시 수년이 늦었을 것이다. 당시의 두등산硯圖發行會란 유희 등산 그대로의 초보적인 脚力훈련이라 할 것이었고, 장미며 등산저식이란 形使없는 것이어서 오늘날과는 隔世의 感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무등산 애호운동이 전개되는 同時에 山岳운동이 일어났다. 본회의 약사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1958년 6월 ~ 文理大주동, 산악반결성 (김응식, 신커현, 김종규 등
기타가 참가) 무등산硯圖發行會開會.
- 1958년 8월 ~ 한국산 등반 (신커현, 김응식 외 참가)
- 1958년 8월 ~ 지리산 종주등반 (7일간)
(신커현, 김응식, 최홍열, 박종철, 김종규, 기양도)
- " 7월 ~ 산악반이 산악부로 개칭 약 60명의 부친가입
- " 9월 ~ 무등산 카빙에서 처음으로 임벽등반 강습 실시
(강사; 한국산악회 최영식 氏)
- " 11월 ~ 노령산맥 종주등반
- 1960년 1월 ~ 월출산 적설기등반 (김응식, 신커현참가)
- " 4월 ~ 가야산등반 (")
- " 4월 ~工大 法大, 医大에도 山岳部結成
- " 6월 ~ 全南山岳會와 協同하여 光州市內 各 中高校

6~

순회 산악강습회실시 (김용식, 신기현, 기양도, 기타참가)

- 1960년 8월 ~ 한라산 등반 (신기현 외 數名).
- " 11월 ~ 山岳장비 사진전 시회.
- " 12월 ~ 기양도 第2代 山岳部長으로 취임.
- 1961년 5월 ~ 工大 임춘재 제3대 部長으로 취임.
- " 6월 ~ 山岳部를 山岳會로 改稱.
- " 8월 ~ 지리산, 한라산 등반. (임춘재, 김훈봉, 김승철 외 다수참가).
- " 10월 ~ 경북학생산악연맹주최 제3회등행대회참가.
(임춘재, 김훈봉, 김승철, 서찬식, 박운성 참가).
- " 11월 ~ 제1회 무등산등행대회 各軍科大學팀참가 (工大1位).
- " 12월 ~ 상대 백양산, 대장산 종주등산 (김훈봉차).
- 1962년 6월 ~ 제2회 무등산등행대회에 각단과대학팀 참가.
- " 6월 ~ 교내장비전 시회.
- " 6월 ~ 무등산 원호야곡에서 산악강습회실시.
- " 7월 ~ 農大 지리산 등반 (최동식, 김응옥 외 수명).
- " 8월 ~ 農大, 商大, 工大 한라산 등반 (김훈봉, 김응옥, 정순택, 정기팔, 최정식, 박운성, 장희승, 한상철, 조병덕).
- " 8월 ~ 工大 지리산등반 A 파티 (박운성, 장희승, 한상철, 조병덕).
工大 지리산등반 B 파티 (서찬식, 박원정 외).
- " 9월 ~ 제4대 회장에 김승철 취임.
- " 9월 ~ 무등산 암벽 등반 훈련.
- " 10월 ~ 제1회 특수체육등산대회참가 (工大팀 모범상).
- " 10월 ~ 제4회 60 Km 극북등행대회참가.

1962년 10월 ~工大 山岳 강습회 실시

○ 1963년 1월 ~ 공보원 『무등산 등산촬영』에 참가

○ 1963년 2월 ~ 졸업생 환송등반

신커현, 임준재, 김홍봉, 박승현 등 졸업

○ " 4월 ~ 農文 주월산, 내장산, 종주등산 (김영부씨)

○ " 6월 ~工大 월출산 등반 (박완성, 정수연, 장희승씨)

祝! 『岳友』創刊

無錫 山岳會

代表 고재기

登山 하는 사람들의 戒言

~ 편집부 편 ~

1. 산에 오르는 마음가짐

- 가. 우리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먼저 國土를 사랑하는 경건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 나. 산은 太古以來의 國運意志를 품고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그것과 같은 존엄하고도 자애로운 교훈을 들려준다. 우리들은 그 품속에 안겨 포근한 마음의 평화를 느낄수 있어야 한다.
- 다. 산에오르는차 모름지기 겸손하여야한다. 산을 알잡아 보는것은 모든 艱難과 艱수의 근원이 된다.

2. 艱難과 時間

- 가. 산에 오를때는 반드시 거리와 시간을 헤아려서 행동하되 힘에 벅찬것은 가지 않아야 한다. 일행중의 가장약한사람을 흐트러뜨림으로서 일행이 서로 떨어지는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높고 멀고 험한곳만이 즐길수있는 산이 아닌것이다.
- 나. 밤길은 艱難하다. 해가 저물기전에 산에서내려와야한다. 「캠핑」을 하는 경우에도 해지기전에 저녁을먹고 고요한밤을 조용히 마치고 즐길수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다. 해지는 시각을 살피두어야 한다. 산마루에서는 아직해가 남아있었다고해도 그늘진 계곡으로내려오면 빨리 어두워진다. 더구나 달이흐르면 계곡의숲속은 생각밖에 빨리 어두워진다. 밤에는 행동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天候關係

- 가. 산에 오르는것도 어려운일이지만 산에서 부닥치는 천후조화가

~9~

더 무서운 것이다. 높고 큰 산에 갈수록 더욱 그렇다. 바람과 구름의 흐름을 살필수있는 어느 정도의 기상의 지식이 꼭 필요하다. 일기예보는 일단 믿고 그때 그 고장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나. 비나 눈이 많이 내려거나 구름과 안개가 짙을 때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일단 행동을 정지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몸을 책서 서는 안된다.

다. 가까운 곳에서 연기가 잦을 때는 높은 나무그늘 밑에 서지 말고 쇠붙이는 일단 내던져야 한다.

라. 비온 뒤의 바위는 미끄럽다. 특히 눈이 덮이고 어름이 찢린 바위길은 대단히 위험하다.

따. 겨울이고 여름이고 땀은 자주 뉘도록 하여야 한다. 갈아 입을 패부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ㄱ 行裝 과 言動

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誠實과 信義를 信條로 하여 들가짐을 단정히 하고 그 言動은 무섭고 점잖아야 한다.

나. 몸차림의 으사스러운 것은 교만한 태를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등산 장비를 자랑삼아 쳐대들고 다니는 것은 등산하는 사람의 수치가 될 것이다.

다. 산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서로 반겨 옛벗과 같이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돕는 정신으로 서로 고치도록 권면할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라. 조산자에 대한 구조는 산에드는 사람들의 가장 엄숙한 책임이요 또 명예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책임과 명예는 결코 값싼功名심과 혼동 될수 없다.

5 危險을 범하지 않도록

가. 산에 오르자면 길을 바로 찾아가야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아는 길도 틀어가지고 했다 산길은 풀과
기 섞이니 지형을 관찰해서 자기가 서있는 위치와 가는 방향을
항상 봐야한다. 서투른 길일수록 자세한 지도(5만복 또는 2만5천복
지/)와 콤팩스를 가지고 나서야한다

나. 처음가는 산이면 반드시 길에 익숙한 사람과 동행해야한다 또
남이 가는 길이라고 예정도 준비도없이 함부로 따라 나서지 말라,
다. 길을 헤들었다고 생각될때는 곧 돌아와서 뒷길길을 다시 찾아
가야한다.

라.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더 높은곳에 올라가려고 하
지말라. 산에서 남에게 이겨보겠다고 산의 힘을 무시하고 제힘
만 자랑고자함은 어리석은 일인것이다. 모든사고는 경솔하게 씨기를 부르
때서온다.

마. 거름밭은 빠르지않고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확실하게 완전한
자리를 끌어서 밟아야한다. 비탈길이나 바위를 밟을때는 더욱 조
심해야한다.

바. 개울을 건널때 또한 조심하여 돌을 끌어서 밟아야 한다. 산
비가 내리면 삼짜기 개울물이 불어오른다. 흐린물을 건널때는
지팡이로 짚어가며 건너야 한다.

사. 신발을 적시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신발을 적시면 걸음걸이가
거뻛고 발이 부르튼기쉽다. 특히 겨울이면 凍傷되기쉽다. 땀에
젖은 양말은 자주 갈아 신도록 하여야 한다.

아. 혹시라도 산꼭에서 돌떨때를 하든가 바위를 끌리는일이 있어

사는 많이 된다. 밑에 사람이 있어도 큰일이고 또 짐승이나 새들이 공연히 놀라게 하여서도 안된다.

6. 風致 와 石蹟

가 나무 한그루 풀한포기도 조국강산의 아름다운 풍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살아서 싱싱한 나무에 상처를 입히지 말며 꽃가지 단풍가지는 꼭지 탈아야 한다.

나. 山城 이과 누각 절 비석도 돌무더기 하나라도 있는 그대로가 우리민족수천년역사의 산기록인 것이다. 성들 하나라도 잘려 버려서는 안된다.

다. 바위를 쪼아 이름을 새기는 일은 산을 더럽히는 일이 될뿐더러 그 단채와 새인의 이름을 두고두고 세상의 욕이되게 하는 일일것이다.

7. 캠핑을 할때

가 캠핑을 할때는 물터를 아껴야한다. 계곡의 흐르는물도 더럽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음에 오르는 사람이나 계곡물의 사람에게 불편이나 불쾌한것을 느끼지않게하여야 한다.

나. 불을피워 땀을 지으려하는 마른나무가지나 슬맹을 주어 모아도 넉々하다. 특히 근교의 들채지대에서는 더욱 조심 해야한다.

다. 잠간 앉았던자리라도 일어 설때는 깨끗히 치워야 한다. 종이조각 과일껍질, 우리병조각을 함부로 버려두지 말고 매우거나 땅에 묻어야 한다.

라. 불을 조심해야한다. 특히 봄날의 마른풀은 화약같이 불이 번진다. 성냥포치 담배 꼬루리 하나라도 온신을 며칠씩 태워 버리게 된다.

~2~
8 산과 들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가 산에서나 들에서나 고달프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두레한다든가, 표만한다든가 또 별관 사람이라든가 하는 오해를 받을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 특히 마을을 지날 때는 행장을 다시 한번 살펴서 단정하기를 기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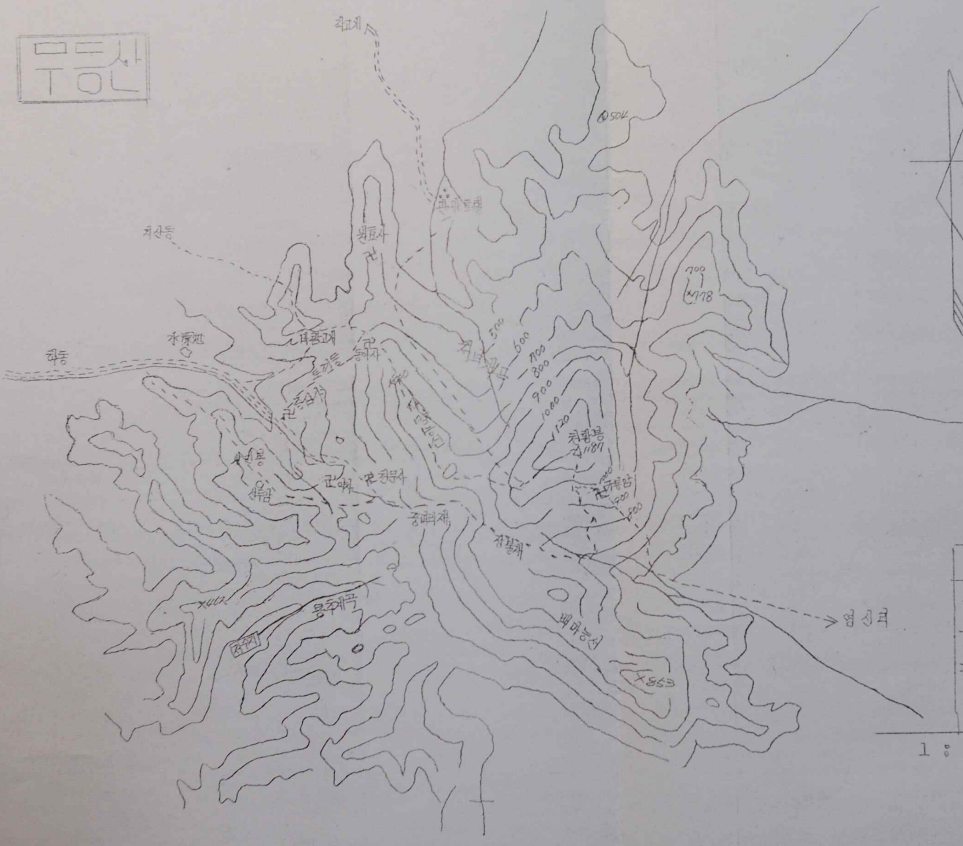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알아 들을수 없는 말을 삼가야 하고

또 묻는것이 있으면 친절히 아는대로 대답해 주어야 한다.

다 낫살은 산촌이나 농가의 어려운 살림살이나 그 풍습이 다 이땅의 대살림의 한 부분인것이다. 산간벽촌의 살림을 깊은 등성과 이해를 가지고 대하는일은 산에 다니는 우리들의 목적 중의 중요한 하나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TOL



凡 例	
	하천
	등반로
	차도
	사찰

1 : 50,000 지도의 복사

<연재>

讀 圖 法 (II)

OB 신 커 령

§1. 도상거리측정(圖上距離測定)의 基本

山生活에서 圖上測定이나 目測의 不正確으로 測距하는 사고나 실 때의 高배를 마시는 例는 許多하다. 여기서는 地圖上으로 測定하 는 極히 基本的인 것을 적어본다. 地圖는 地球表面의 全部 혹은 一 部를 축소한 그림이기 때문에 縮尺 비율인 축척을 모르고는 그 地域 의 실제거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축척이 그려있지 아 니할 때 우리는 이때 알고있는 두 지점간의 지도상 거리와 실제지 상거리를 비교하여 그의 축척을 알아 낼 수 있다. 즉 地圖上의 거 리가 20cm로 되어있는 두 지점간의 거리가 우리나라 里程로 25 里 라고 할 때 4km가 10里 이니까 25里는 10km가 되며 지도상에서는 20cm로 나타낸다. 이에 依하여 지도의 축척을 算出한다면 $\frac{20cm}{10km}$ $= \frac{2}{100,000} = \frac{1}{50,000}$ 즉 1:50,000 지도인 것이다. (축척 = $\frac{\text{실제거리}}{\text{도상거리}}$)

이런데 축척은 거리를 測定하는데 가장 必要한 條件이 된다. 지도 상에서 방향을 測定할 때는 축척에는 關係없으나 方位선과 關係가 되는데 이는 후술 하겠다.

거리를 測定하는데는 自動測距器나 步測計가 使用되며 海안선 또는 만곡된 道路 등 의 거리를 測定할 때는 曲線計가 使用된다. 그러나 지도상의 도상거리의 測定에는 尙古적으로 그 지도상의 任意間의 거리를 알아내어 그것에 축척숫자를 곱하면 실제거리가 산출된다 즉 50,000분의 1 지도상에서 1cm는 실제지상거리 500m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러나 콤파스(보통죽거리) 또는 비례콤파스를 사용하

여 두點間의 도상거리를 축척도표에 따조하여 실제 지상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方法으로 산출된거리는 수평거리이기때문에 起伏性이 심한 山地는 그와 相當한 差이 생긴다. 山生活에서 거리를 측정하려할때는 工數値에 差를 가산하면 실제거리에 가까운 수치를 얻을수 있다.

오차 目測의 基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目測과 實際距離比較 그리고 오차에 대한 差를 말하고자 한다. 이제 더 지역의 거리를 目測하려고 할때준이되는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000m ~ 산정에 있는 木叢이 능선에 懸垂의 線으로 보인다.
- 3000m ~ 높은곳에서 바라볼때 木叢의 움직임이 變할수 있다.
- 2200m ~ 사람이나 말, 소가 焦點으로 보인다.
- 1500m ~ 사람이 검은 線으로 보이고 山頂의 木叢의 輪廓를 볼수 있다.
- 1200m ~ 도보와 승마를 區別할수 있다.
- 900m ~ 行列을 하는 群衆을 辨別할수 있다.
- 800m ~ 손발의 운동, 단추를 볼수 있다.
- 700m ~ 木叢의 수를 數할수 있다.
- 450m ~ 머리, 몸의 輪廓를 辨別할수 있다.
- 400m ~ 소나 말의 색깔, 사람의 손발을 辨別할수 있다.
- 250m ~ 사람의 輪廓를 辨別할수 있다.
- 150m ~ 단추의 수를 數할수 있다.
- 100m ~ 눈과 입을 辨別할수 있다.

以上은 물론 辨別이 개인 좋은 辨別力이며의 條件이며 보통사람의 力(1.0~1.5) 으로서 標準을 삼는 것이다.

~19~

이 밖에 실제거리보다 멀게 혹은 가깝게 보일때가 있는데 이는 사
력에도 관계가 있겠지라 대략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있다.

(A) 실제보다 가깝게 보이는 예

- ① 하늘이 개이고 특히 북풍우가 지나간 직후와 같이 공기가 맑을때
 - ② 차가 태양을 등지고 햇빛이 비치고 있는 어떤物체를 바라볼때
 - ③ 目標物은 물체가 그뒤의 배경이나 혹은 어떤物체의 색에
依하여 깨끗히 그모양이 들어날때
 - ④ 목표의 물체가 홀로있어 다른것과 혼동되지않고 독립적으로 있
을때
 - ⑤ 曲地 혹은 평탄한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을때
 - ⑥ 目標物의 앞다른 물체가 있어 目標物의 절반이상을 가
리우고 있을때
 - ⑦ 어떤物체를 쳐다보거나 내려다볼때
- (B) 실제거리보다 멀리 보이는 예

- ① 일기가 무더울때
- ② 태양을 앞에안고 물체를 바라볼때
- ③ 目標物이 그 배경의 색에依하여 흐릿하게 보일때
- ④ 흐린날, 안개진날, 저녁노을, 山林수 또는 좁고 길다른 골짜기
에서 물체를 볼때
- ⑤ 낮은 자세로서 물체를 바라볼때

<次号 계속>

『에베레스트 습격대(I)』

— Life 系에서 —

W·W·SAYRE 記

도치 남 상 만 옮김

현결음, 또 현결음 편으며 올랐다. 심장은 심하게 뛰며, 숨이 헐떡이웠다. 숨이 가라앉기를 바라며 계속걸었다. 이러한 수천의 발자국은 내가 20여년 동안 가졌던 꿈의 하나를 실현시켜 주는 것임이다. 나는 에베레스트의 23,000 feet 에 있는 North col 의 빙설위를 걷고있읍니다. 에베레스트의 북면은 오후의 파사란 햇빛을 광복받으며 대앞에 섰드렸읍니다. 나는 곧 다른대원들과 연결되엇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보다 6,000 feet 더높이있는 정상을 바라보며 서있읍니다. 정상이 매우 가까히, 自由의느낌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1,000 feet 의 매우 가파른 압력까지에는 어렵지않게 오를것같읍니다. 우리들은 흥분을 억제 하며 은근한 미소를 지엇읍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하나나 둘의 기적을 낼수 있을것이며 정상 혹은 정상 가까이에 도착할수 있을것임이다. 단지 우리들 4명으로서 결국이렇게 온것도 기적임이다. 우리들대원은 나의오랜친구이며 보스턴에서 편호사를 하고있는 당년 38세의 Norm Hanson; Teuft 산악회에서 나와 함께 등반했던 당년 21세의 지질학도 Roger Hart; 스위스에서 우리와 함께 결합했으며 Basel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Hans-Peter Luitte; 그리고 Teuft 대학교의 철학교수인 43세의 本久, 이렇게 4명이다. 그외의 다른사람은 전혀없이 단지 우리 4명뿐, 우리들은 셀봐도 없으며, 우리들을 제외 하고는 식량이나 장비를 운반하는 사람도 없으며, 우리들과 교대할 능숙한 등반대도 없으며, 사고나 질병이 생길 경우 우리들을 보살피줄 의사도 없읍니다. 우리는 또한 산소호흡기도 없읍니다.

~21~

그것은 너무 무거우며 값이 비싸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산정험은 너무나 비약합니다. 8년전 *Hansen* 과 나는 20,320 feet
의 "막리레이산" 의 등반과 *New-England* 근방에서의 보잘것없는
Rock-climbing 경험에 있을뿐입니다. *Hans-peter Lutte*
역시 스위스에서 보잘것없는 등반경험을 가졌으며 *Roger Hart*
는 *Tuft* 산악회에서 2년간의 *Rock-climbing*이 그의 경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부족합니다 에베레스트에 대한 예비지
식이 부족하였으므로 그것은 커다란 문제를 이를 위한 한 요소가 되
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등반작이 없으며, 1921년 영국의 첫번째
정찰대의 루-트였던 북쪽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루-트는 1924
년에 *Mallory* 와 *Irwin* 이 조산 했으며, 그후에도 7명이나 되는
다른 공격자들이 실패해버렸던 루-트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를 2번 정복한것은 남쪽 루-트를 이용하여 완수했던것입니다.
북쪽 루-트는 티벳에 있으며, 지금은 中대의 진출때문에 西藏人에
게는 그 곳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걸음 생각해 보
았습니다.

그것은 에베레스트에서 空路로 15 마일 떨어져있으며 티벳-티벳 국
경에 있는 25,910 feet 의 *Gyachung-Kang* 의 능선위
에 높이 19,400 feet 가 되는 *Nup Lu* 계곡 이었다.
만일 우리가 이 골짜기에 들어 설수 있다면 우리는 티벳으로
넘을수 있으며 북면의 설원에 등근편을 그리며 25 mile 이나
뒤는 우리들의 발자국을 남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폴 정부에 *Gyachung Kang* 에 등반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내폴에 있는 어떠한 산이라도 등반하는 데는 내폴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지금까지 수년동안 미리 예약이 되어 왔는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비공식적인 원정대는 남면공적의 공식적인 허락을 얻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희망이라고는 티베트를 통하여 에베레스트에 접근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1962년 2월에 *Gyachung Kang* 에 등반하는 허가수속을 마쳤습니다. 우리들은 이 등반에 200 이나넘은 항목들과 특별식량 특별장비, 의약품, 심지어는 커피의기구 등의 짐꾸러미 까지도 준비하느라고 이런 여행에 대한 재미나 즐거움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는 에베레스트에 관한 모든 서적을 기억시키고, 지도공부, 등반방법에 대하여 끝없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들이 보스톤 공항을 흥분에 들뜨며 출발할 날이 왔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짐수레의 과업을 뒤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 버렸습니다. 비행기 여행에는 가방무게가 한정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ice axe* 와 *ski-pole* 은 손에 들고, 핸드백엔 외투으로 가득차으며 호주머니에는 고기와 20파운드 가량의 초코렛을 넣어 두고, 세타, 코트, 자켓, 오바코트 등은 잃어버렸습니다.

목에는 구두, 등산화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꼴로 공항의 로비에 들어서니 물에서 솟아려고 고개를 싸미는 "해마" 나 여러가지것에 감쳐진 텅쿨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삼주일을 스위스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빙상 등반을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들은 *Cutting step* (브랭크발디움)을 하기위한 *ice axe* 의 사용법을 몰랐으며,

~23~

땡산에서 피투으로 등반자를 안전하게 확보 해 주는 독특한 방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등반하는데는 좋지 못한 시기라고 설명해주었기때문에 시기하러 갔
 습니다. 우리들은 식량과 장비를 사들여 잘 꾸렸으며 식량은 브라
 스틱으로 포장하여 1人或은 2人の 4日이나 10日分량으로 나누어
 식량을 더욱 완전히 보전할수있는 더큰 브라스틱 가방에 정리하였
 습니다. 우리보다앞선 원정대들의 계획표로부터 고산에서 필요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특유한 섭취량과 매일 필요로하는 카로리
 양을 알았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고산에서는 지방질을 많이 섭취한
 인됩니다 (비무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휴식전 밤에는 단백질을 먹
 어야 합니다. (소화시간이 오래걸린다) 그리고 날마다 평균 4,400
 Cal을 섭취해야합니다. 또한 고산에서는 실제적인 호리를 환수가
 없으므로 모든 식량은 약간의 수분이 있어야 하며 약간의 열(熱)
 로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할수있는 형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포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면할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하나, 하나를
 정확히 유효하게 분리 할수 있게끔 포장을 단순 간편하게 꾸려야
 합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인도의 뉴 델리까지 비행편을 취하였습니다.
 3月26日, 우리들은 Gyachung Kang 아래에 예정했던 Base Camp
 까지 185 mile 되는 지점에 위치한 내팔의수도 Katmandu 에
 Biker 인이 조종하는 조그마한 비행편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평평한 안개위로 끝속 솟아나는 산맥들의 처음보는 풍경은 놀랄만
 한것이었습니다.

산봉우리까지 서리(霜)가 서려있다가 보다는 푼 겨울 같은

~24~
2 mile 정도의 빙설벽이 인도산맥을 향하여 등진하는 거대한
폭풍 이라고도 표현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雪線 과 雪峰 사이의 거리!

雪線 들은 유유럽의 가장높은 산보다 더높이 뻗어가며 雪峰들은
雪線 위 높이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하고 믿을수없는 어떤것을 느낄것입니다.

우리들의 미약한 준비로 이런 장애물을 넘을수있을까?

그러나 나의눈은 점점 새로운 전경에 익숙하여졌고 자신이 생
기며, 합리적 변명적으로 되어 약간의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Katmandu 에서는 네펠의 관습을 익히며 Base Camp 까지
0.5 ton 이가되는 장비를 운반해줄 22 명의 포타와 2명의
셀퍼를 얻기위하여 8일간 머물렀습니다.

식량중의 약관은 네펠의 창고에서 켄들 때문에 손상을 입었으
나 대부분의 식량은 온전히 보전 되었습니다.

<文通 계속>

~ 이제 새로운 각오로 ~

廣大 정 순 태

우리全大山岳會는 그동안 심한 가슴앓이의 진통후 再起의 巨擘을 내민었다. 이번 飛行하게된 岳友 창간집이 우리 山岳운동의 새로운 始末이 될것임을 믿어 自慰하는 마음크다. 勿論 이 月報가 몇호나 계속될런지는 불리도 그 의의만은 결코 소홀할수 없을것이다. 작년 岳兄들의 열심으로 가가스로 본채도에 올라선 우리는 신저울동안 우리를 외시뒀을정도 침체연잡이 없지않았다. 이점 졸업하신 선배님이나 우리 自身에 부끄러운마음 자못크다. 그동안 社評에 대해서나 선배님들에 대해서나 「카즈키」의 변신 「그레고르」를 代役해왔던 것도 슬직한 마음이다.

이러한 內的 활동은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로서 새로운 出口을 열어 주었다. 물론 그 뜻은 특색의 화성으로 인도되는 차관발전이다. 이제까지 이렇도록 밀폐된 울안에서의 各學科大學山岳部의 활동은 불변한 점 많았다.

文理大가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트리고 再起하였고, 農大도 꾸준한 노력으로 優勝을 찾아하여 元氣百倍 움직이며, 一時 스텝트에 빠졌던 상대도 反省으로 再出發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앞장 서오는工大역시 더큰 발전을 위하여 체질 개선에 촉각을 쫓드르니 그러므로 山岳의 活動은 적잖은 발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활동을 뵈고 두른 眼目으로 볼때 眞實한 감각을 잃은 거부와 自虐이었음을 自認하지 않을수 없다.

沙漠의 모래를 해변의 砂場으로 작각함도 약간 지나치다.

이런 目的意識을 가지고 出発한 本山岳會 역시 坐視同行했음은
實로 큰 損失이었다. 曠野를 둘러매고 山 巔에 גיע보곤 岳人
임에 하는 사람들과 체계적으로 山을 攻어 탈락한 點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그때도 知性岳人(?) 으로 認는 우리들의 覺醒은 마비되어야만 하
는가? 우리의 內的 實績은 말할것도 없지마는 기타 사회와
山에대한 義務 또한 کم을 느껴야 할 것이다.

各人의 조금의 餘力만을 모으더라도 그의 成果는 기대 될수있
을 것이다.

三千年前 애굽의 是 근축으로만 피라민과 스�핑크스를 만들지 않았
는가?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ALPINISM 에 앞장 삼시다.

「정상은 아직 먼곳에 있다 ~ 여기서 ~ 探險者를 돌려보냈다.
이제부터는 내 自力으로 해 보자는 것이다. 이 < 알프스 > 의
自由를 적어도 金錢으로 代價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혼자서 험한 자연의 장애와 위험 속에서 몸을 말려 돌으
로서 自己 과는것이 크게 되어 成을 느꼈다

금년도 사업 계획

~ 계획 부 ~

4月17日의 定期總會와 4月22日의 임시총회에서,
今年度 事業計劃과 앞으로의 全大山의 事業計劃方案을 討議하였는
데 그 內容을 보면,

全大山과 單科大學山の 事業을 区分하였다는 뜻의 특기할만한 점이
다.

지금까지는 全大山과 單科大學山の 事業이 區分없이 시행하였기 때
문에 서로 중복 또는 타락 되며, 實效를 거두지못한 광대한
面이 다분히 있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全大山과 單科
大學山の 事業區分の 原則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 全大山에서는 總괄적이며, 合體으로 시행할 必要가 있는 사업
할 것이며 單科大學山에서는 以차의 事業만을 한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全大山에서는 山岳강습회, 월보 발간,
장비의 구입, 학술조사, 전시회, etc 의 事業을 하며 單科大學
山에서는 以차의 諸般登山 및 事業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原則下에今年度에 計劃한 全大山의 事業을 細目的
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月報의 發刊

大學山岳會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또한 發展的인 會가 되
기 위하여서는 극히 必要한 것이다.

月報를 通하여 새로운 지식을 나누어 습득하며, 會員相互間
의 연구의 促進은 물론, 서로간의 友誼를 두텁게 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에서는 6월부터 月報를 發刊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山岳의 理論, 등산요-스도, 會員의 山岳論文, 會員의 文學作品 등으로 채워질 것이다.

2. 장비의 구입

共同장비의 확보, 개인장비의 단체구입 등이다.

이것은 본회가 尺少까지 가장애로를 느껴왔던 事項中の 하나로 되어왔다. 今年에는 더욱 效率的인 연구를 하여 共同장비의 確保 및 개인장비의 團體구입을 저성기로 하였다.

3. 학술 조사

本회의 創生 이래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事業中の 하나로 되어 있다. 우선 무등산 부터 시작하여 全嶺의 山岳을 차례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今年에는 6월에 모든 계획의 수립과 一次的인 調査完了, 9월과 10월에 二次的인 조사

12월 경에 三次的인 조사를하기로 하였다.

4. 山岳 전 시 회

지금까지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이며 山岳인들의 계몽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다.

금년에는 계속하기로 하였다.

5. 山岳 강 습 회

지금까지 매년 시행하여 온 事業中の 하나이며 山岳지도자

양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29~

금년에는 더욱 폭을 넓혀 全會員에게 시행 될 것이며 더욱 실질적인 강습을 할 것이다.

今年의 전회기에는 6월 15日 ~ 16日에, 후회기에는 9월경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6. 작 설 기 등 반

금년 겨울에는 더욱 훈련을 쌓아 来년부터는 지리산에 원정 하게 될 것이다.

금년에는 두등산에서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7. 山 岳 祭 (ALPINE CARNIVAL)

아직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 못했으나 금년부터 시작하여 毎年 10월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他大學 山岳會도 초청할 방침이 되어있어 기대를 가져 볼만한 사업이다.

외외관이 모든 면에 의욕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본회의 발전에 크게 다행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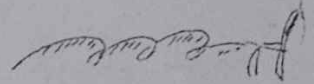
會員들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하고 있다.



산악회소식

- 慶大산악회에서는 4月18日부터 21日 까지 추월산 내장산 등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 斗大산악회에서는 6月1日부터 2日까지 월출산 등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 本會에서는 6月15~16 양일간 無等에서 산악강습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편 집 후 기



- 오랫동안 열망해오던 月報가 드디어 그 탄생을 보게되었습니다. 이 月報가 나오기까지 힘써주시 兪兄任들, 학교장님과 재건학생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조그마한 月報를 兪刊하는데도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내 놓고보니 부끄러운점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훌륭한 月報를 약속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편 집 부 —